

경제파급효과 7.4조 육박… 경주, 글로벌 투자거점도시 부상

APEC 정상회의 폐막

경주시, 산업·문화 경쟁력 뽐내
세계 정상·기업 리더 등 눈도장
글로벌 투자·협력 중심지 기대

20년 만에 한반도로 돌아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성황리에 폐막됐다.

이번 행사를 통해 경주는 단순한 개최도시를 넘어 글로벌 투자 거점으로 변신을 본격화했다. 역사와 문화, 첨단 산업이 만나는 천년 고도 경주가 이번 APEC을 계기로 지역 경제에 남긴 의의와 향후 발전 방향을 살펴봤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딜로이트컨설팅의 공동 분석에 따르면,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로 인한 총 경제 파급 효과는 7조 4,000억 원에 달한다. 단순한 수치에 불과해 보일 수 있지만, 이는 경주 지역과 국가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규모다. 더불어 고용 창출 효과도 2만 3,900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어,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을 넘어 지역 고용 시장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

이러한 경제 효과는 먼저 단기 직접



지난 27일 시민들이 경북 경주시 경주예술의전당 앞을 지나고 있다.

/뉴스시

효과로 약 3조 3,000억 원으로, 주로 숙박, 식음료, 교통, 시설 개보수 등에서 발생하는 내수 소비 증가다. 이는 AP EC 개최 기간 동안 약 21개 주요 회원국의 정상들과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경주를 방문하면서 직접적으로 창출된 소비 활동의 결과다. 한편 중장기 간접 효과는 약 4조 1,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수치들이 '추정치'일 뿐 확정된 효과가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 경제 파급 효과의 규모는 방문객의 체류 일수, 1인당 지출액, 산업별 승수효과 등의 변수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번 APEC의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 중 하나는 경주가 글로벌 투자 거점 도시로 부상했다는 점이다. 지난달 29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주관한 'Invest Korea Summit 2025' 지방 현장 투자설명회는 캐나다, 중국,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인도, 남아공, 체코, 태국, 헝가리, 필리핀 등 10개국에서 온 외국인 투자자와 외신 기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경주 엑스포대공원 내 APEC 경제전시관에서 경상북도와 경주시

의 투자환경 설명회를 청취했고, 철성대, 대릉원, 천마총 등 역사문화유산 현장을 방문하며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서의 경주의 강점을 직접 체험했다.

경주시는 이번 APEC 행사를 통해 천년의 역사와 문화 더 나아가, 미래산업과 글로벌 투자를 선도하는 국제 도시로 전세계에 각인 시켰다. 7조 4천억 원대의 경제 파급 효과와 2만 3,900여 명의 고용 창출은 단순한 수치를 넘어, 경주 지역과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은 세계 주요국의 정상과 글로벌 기업 리더들이 경주를 방문하면서 구축된 국제 신뢰와 네트워크다. 이는 향후 경주가 국제 무역, 투자, 협력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이제 경주에게 남겨진 과제는 '호재를 어떻게 실질적 성장으로 전환할 것인가'이다. 이번 APEC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도시 역량 강화와 중장기 발전 전략을 추진한다면, 경주는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투자 거점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규춘 기자 ch9720@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경북도-구글

AI 스타트업 경쟁력 강화 '맞손'

경북도가 경주에서 '아태지역 AI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리셉션'을 개최하고 글로벌 기업 구글과 함께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경주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술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세계적 기업 구글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지역에 접목해 혁신기업 성장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한편 경북도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첨단 기술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김해시

김해~밀양 고속도로 예타 통과

김해시가 김해~밀양 고속도로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국도교통부는 재정사업 평가위원회를 열고 김해~밀양 고속도로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타당하다고 최종 의결했다.

예타 통과에 따라 사업 시행 주체인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3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개통할 예정이다.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사업비 1조 4965억원, 총연장 19.8km 규모로 김해시 진례면과 밀양시 상남면을 잇는 노선이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울산시

'울산 스타트업 페스타' 개막

울산시가 3일과 4일 이틀간 중하이노베이션센터에서 '2025 울산 스타트업 페스타(Ulsan Startup Festa)'를 개최한다.

6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울산시와 울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공동 주최하며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포함한 지역 15개 창업지원 기관이 공동 주관한다.

이번 행사는 스타트업 주간으로 확장돼 11월 5일에는 울산청년지원센터 '울산 청년토크 콘서트'와 HD현대중공업 '2025 HD현대중공업 오픈 이노베이션 네트워킹 행사'가 열리며 주말에는 미래와소프트웨어재단의 초·중학생 대상 '꿈찾기 캠프'가 진행된다.

/울산(경북)=손병호 기자

포항시, 'AI 혁신도시' 중장기 계획 추진

2030년까지 10만명 AI 인재 양성

포항시(시장 이강덕·사진)는 2030년까지 총 10만 명의 인공지능(AI)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지방정부가 대학·기업·글로벌 기관과 협력해 AI 인재 생태계를 조성하고, 포항을 대한민국 대표 AI 혁신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다.

시는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11개 인재양성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학위과정부터 산업 현장 실무까지 아우르는 '전 생애형 AI 교육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총 10만 명의 전문·실무형 AI 인재를 길러내고, 지역 산업 전반의 AI 활용 역량을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주요 사업으로는 ▲포스텍 인공지능대학원 지원사업 ▲포스텍 산업인공



원사업 ▲SW미래채움 등이 있다.

포항시는 이들 사업을 통합 관리해 연구와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AI 인재 허브 도시'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포스텍과 한동대를 중심으로 한 고급 연구인력 양성, 포항테크노파크와 RIST의 산업 실무인력 교육, 시민 참여형 SW미래채움 프로그램을 연계해 지역 맞춤형 인재 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인재 유출을 최소화하고 산업의 디지털 전환(DX)과 인공지능 기반 산업혁신(AX)을 촉진해 신산업 창출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son@

순천시, '지속가능발전 ESG 평가' 전국 1위

지속가능발전정책 성과 인정 받아

전남순천시는 ESG행복경제연구소가 실시한 '2025 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 ESG 평가'에서 전국 기초지자체 부문 전국 1위에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연구소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106개 세부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수준과 행정역량을 객관적으로 진단한 결과라고 시는 설명했다.

순천시는 ESG 행정 실천을 위해 환경 분야에서 국내 기초지자체 최초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가입,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AI 기반 재활용 분류 시스템 도입,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순천시청 전경.

/순천시

운영했다.

사회 분야는 전남 최초 달빛어린이 병원 운영, AI를 활용한 돌봄 복지 실현, 지능형 응급의료 시스템(AI앰불런스) 구축, 기후시민 학교,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 우주항공 미래성장산업 육성 등이며 거버넌스 분야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이 평가받았다.

/순천(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박정환 "달서구에 시설관리공단 설립해야"

(달서구의회 의원)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해 대구 달서구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달서구의회 등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 공공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이다. 현재 전국 70여 개 기초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며 전국적으로 꾸준히 추진되는 추세다.

달서구는 인구 약 52만 명으로 대구·경북 최대 규모의 기초자치단체임에도 수많은 문화·체육·복지시설이 부설별로 분산 관리되거나 민간 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운영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정환 달서구의회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통해 운영의 전문성 강화, 예산 집행의 효율화, 공공서비스의 일관성 확보, 책임경영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공단 설립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통해 구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의 첫걸음을 내딛고, 달서구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시설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구=이도식 기자

부산시,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 속도

문체부 지원사업 선정… 299억 확보

부산시는 '부산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99억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된 국비는 사업 첫 해인 내년 50억원 지원을 시작으로,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사업 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사직야구장 재건축 총 사업비 2924억원 중 지

방비 부담을 크게 줄이게 됐다.

시는 내년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2028년~2030년 공사, 2031년 3월 개장을 목표로 재건축을 진행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새로운 사직야구장은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지역 경제 거점시설이자 스포츠·문화·산업이 어우러진 부산의 미래 자산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라며 "시민 친화적인 명품 야구장이 재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곡성(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